

자산 늘어나는 보험사·연기금... 혁신기업 투자 독려해야

운용 자산규모 20년간 3배 늘고 투자금액 20.4조→53.4조로 상승 EIF '기금도입' 혁신기업 투자 독려 韓 정부, 혁신지원 효과 실현위해 스텐더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글로벌 보험사와 연기금이 창업·혁신기업을 위한 '장기 투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의 운용 자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에 따라 보험 상품 수요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보험사의 자산 축적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전 세계적 고령화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의 관심이 증가해 연기금의 자산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보험사와 연기금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지난 2002년 22조9000억달러에서 2022년 69조7000억달러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투자 금액도 같은 기간 20조4000억에서 53조4000억달러로 2배 넘게 상승했다.

보험사와 연기금은 고객의 보험료와 저축을 긴 시간에 걸쳐 관리한다. 단기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사 연기금 관련 이미지.

시세 차익 보단 장기 투자 수익 실현과 기업 성장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얻는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보험사와 연기금의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유럽은 기업 혁신에서 미국과 아시아에 뒤처지고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위치도 약해지고 있어 혁신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연기금의 투자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투자기금(EIF)은 지난 2017년 'AMUF(자산관리 엄브렐라 기금)'을 도입해 각국 보험·연기금이 자국을 넘어 유럽 전체 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티비이니셔티브(Tibi Initiative)' 프로그램으로

우수 벤처펀드에 대규모 기관투자를 연결하고 영국도 '롱 텀 에셋 펀드(Long Term Asset Fund)'를 통해 퇴직 연금이 사모펀드 등에 투자되는 것을 허용했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유럽 내 혁신 증진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사와 연기금의 투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보험사와 연기금이 기업 혁신 지원과 경제성장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스텐더십 코드(Stewardship code)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보험사와 연기금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장려했다.

또한 정부는 연기금의 벤처 펀드 출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기금과 연기금투자자의 기금 운용 평가에 벤처투자 가점 기준을 개편해 벤처투자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은 주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해 소규모 창업기업까지 포괄하기엔 아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사와 연기금의 소규모 창업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들은 아직 도입 단계라는 분석이다.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보험사와 연기금에 대한 여러 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소규모 창업 기업에 관한 정책은 아직 도입 단계"라며 "과도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기업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처럼 정부가 우량 벤처 캐피탈 기금을 선정해 안정성을 보장하거나, 영국처럼 시장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DC형 퇴직연금에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현대해상 '창립 70주년' 엠블럼·슬로건 공개

현대해상은 27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번 엠블럼의 디자인 모티프를 '하트(Heart·마음)'로 삼고 진심과 전심을 다해 고객과 구성원의 삶 속에서 함께해 온 70년의 여정을 담았다.

엠블럼은 숫자 '70'을 다채로운 색상과 기하학적 도형들의 조화로 형상화해 현대해상이 마음을 나눈 모든 순간을 표현했다. 따스하고 생동감 넘치는 색상과 부드러운 질감의 표현을 통해 현대해상의 휴머니티를 담았다.

슬로건 'Sincerely yours 1955-2025'는 정성스러운 편지의 맺음 말처럼 현대해상의 지난 여정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애정과 존중을 표하고 새로운 100년의 희망을 전한다.

삼성화재 '원팀골프보험' 출시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개별 개인 정보 입력 없이 라운딩 동반경기자 전체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원팀골프보험'을 출시했다.

원팀골프보험은 가입자 본인의 정보만 입력하면 동반자들은 무기명으로 자동 보장된다. 동반자가 매년 달라져도 별도 변경 없이 본인 정보로만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업계 최초로 탐단위요율을 적용해 라운딩 인원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험료로 동반자 전원이 보장받을 수 있다. 팀 내 본인 및 동반자의 배상책임은 물론 홀인원을 했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하고 가입자 본인의 상해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KB손해보험 유튜브 '견생2막' 공개

KB손해보험은 27일 긍정적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한 펫보험 연계 콘텐츠 '견생2막'을 KB손해보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견생2막은 주인을 만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강아지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낸 콘텐츠다. 반려견의 시선에서 직접 견생(犬生)을 이야기하는 독특한 콘셉트가 돋보인다.

견생2막은 총 4회로 제작됐다. 격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이를 기념해 견생2막 감상평 이벤트를 진행한다. 영상을 시청한 후 KB손해보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감상평을 댓글로 남기면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펫웨어를 증정한다.

/김주형 기자

“매일 경영방향 고민... 1.2만 조합원 ‘안심 금고’ 만들 것”

새마을금고 새 얼굴

손인창 중곡1동 이사장

전국동시 이사장선거 재선에 성공 공동대출 제로화 등 4개과제 제시 조합원 120명과 견학 '소통 강화'

“올해는 경영환경이 더 어려울 전망이다. 매일 금고 경영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심사숙고하고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조합원 이익을 증진하겠다.”

27일 손인창 서울 중곡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 이사장은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곡1동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는 1601억원이다. 선거는 대의원제로 진행했으며 대의원



손인창 중곡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정산 기자

120명 중 1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손 이사장은 76표(65.51%)를 득표해 최종 당선됐다.

손 이사장은 향후 과제에 대해 ▲공동대출 제로화 ▲조합원 소통 강화 ▲임직원 복지 증진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지난 임기 기간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선 건전한 금고 경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억1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다 올 1분기에도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서다.

가장 먼저 공동대출 제로화에 나설 계획이다. 공동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리면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 포트폴리오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내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가계대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손 이사장은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내달 19일에는 조합원 120명과 함께 천안에 있는 MG인재개발원으로 견학을 떠난다. 견학과 함께 초빙 강연도 예정돼 있다.

손 이사장은 "코로나19 당시 취임해 조합원들과 깊은 소통을 나눌 자리가 부족했다. 임기 후 처음으로 조합원을 제대로 모시는 자리다. 이번 견학이 조합원들과 유대를 한층 더 쌓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토허제 재지정’ 송파 아파트값 하락 전환

서울은 8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송파구는 13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여파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

째 주(24일 기준)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5%) 대비 0.11% 상승하며 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강북권은 성동구(0.37%→0.35%) 응봉·행당동 역세권, 용산구(0.34%→0.18%)는 한강로·이

촌동 주요단지, 마포구(0.29%→0.21%)도 염리·아현동, 광진구(0.25%→0.15%)는 광장·구의동 학군지, 종로구(0.06%→0.07%)는 창신·평창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권은 강남구(0.83%→0.36%)는 개포·압구정동 주요단지, 서초구(0.69%→0.28%)는 반포·잠원동 재건축 추진 단지, 양천구(0.32%→0.29%)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송파구(0.79%→-0.03%)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대폭 하락하며 강남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일부 선택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며 "다만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jw13@